

반도체

금쪽같은 오라클, 다른 AI 종목에는 기회

지금은 AI 옥석 가리기라는 판단, 주요 종목 매수해야 할 때

지금의 조정 국면은 AI 산업의 성장에 확신을 가진 투자자에게 매수 기회라는 판단이다. 오라클의 현금 흐름 약화 우려 및 펀딩 이슈는 AI 산업 전반에 걸친 부정적 뉴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라클의 주가 하락과 최근 시장의 반응은 단순한 악재 반영이나 트렌드 붕괴라기보다는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기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AI 시장에서 수익화 경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면서도 최근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NVIDIA, Broadcom 등 AI 종목과 관련하여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종 매수를 추천한다.

오쪽이가 가진 구조적 포지션이 AI 국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

오라클은 AI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뒤늦게 너무 공격적으로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재무 구조가 급격히 흔들린 케이스다. 오라클은 원래 AI/하이퍼스케일러 업체가 아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수년간의 클라우드 워크로드, 안정적인 FCF, 대형 고객 풀을 기반으로 이미 검증된 수요 위에 Capex를 사용한다면 오라클은 빠르게 성장하긴 하나 절대 규모가 작은 OCI 매출 대비 Capex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현금과 안정적 회사채를 기반으로 Capex를 집행하는 AWS/MS와 달리 오라클은 채급 대비 큰 Capex를 집행하려다 보니 외부 인프라 펀딩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의존도가 높았다. 즉, 오라클은 AI 사업이 성공해야만 현재 밸류가 설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말 차익실현 니즈가 커진 시기에 투자자들의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 상황으로 보여진다.

AI 산업 전반에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다

이번 오라클 이슈를 AI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현재 조정의 본질은 AI 수요 자체의 둔화가 아니라, AI 투자 구조와 재무 체력에 대한 '옥석 가리기' 과정에 가깝다. AI 서버, GPU, HBM 등 핵심 밸류체인에서는 수요 가시성이 여전히 높고,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 Capex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다. MS, AWS, Google 등은 이미 대규모 AI 워크로드와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AI는 기존 클라우드 매출의 연장선상에서 점진적으로 수익화되고 있다. 이번 조정은 AI가 '성장 옵션'이 아니라 '성공을 전제로 한 베팅'이 되어버린 일부 기업에 대해 시장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즉, AI 산업 전체의 수요 붕괴나 거품 붕괴라기보다는 누가 AI를 통해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누가 선투자 대비 수익 가시성이 낮은지에 대한 선별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AI 경쟁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 재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수림 반도체
02-709-2661
surim.lee@ds-sec.co.kr

2025.12.19

비중확대 (유지)

표1 나스닥 주요 AI 관련주 수익률 및 밸류에이션 정리

티커 기업명	NVDA-US 엔비디아	AVGO-US 브로드컴	AMZN-US 아마존	GOOGL-US 구글	BE-US 블룸에너지	GEV-US GE 버노바	MSFT-US 마이크로소프트	META-US 메타
1M 수익률 (%)	-5.7	-4.3	-0.6	4.4	-26.7	10.7	-3.6	8.7
3M 수익률 (%)	-3.0	-5.6	-4.3	17.7	-4.9	0.5	-6.4	-16.8
최근 고점 대비 현재 주가 (%)	-19.4	-21.4	-14.4	-9.8	-47.9	-16.0	-14.3	-18.4
12M Fwd P/E (배)	23.5	30.8	28.1	26.5	75.5	48.6	27.4	22.0

자료: Factset,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